

IRS NEWS

No.33

2 0 1 3
SEPTEMBER
WWW.RUS.OR.KR



블라디미르 소재 안드레이 보골롭스키 교회(촬영 : 한국외대 HK교수 최우익)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89 국제지역연구센터 연구동 412호
89 Wangsan-ri, Mohyeon-myeon, Cheoin-gu, Yougin-si, Gyeonggi-do, 449-791
TEL 031-330-4852 FAX 031-330-4851

IRS NEWS

No.33

소장 인사말 3

학술행사 4

단행본 학술지 출판 11

연구소 동정 13



4

한국노어노문학회와 공동 국내학술회의 개최(2013.6.7~6.8)



8

러시아어 토론대회(2013.5.10)



9

러시아어 서머스쿨(2013.6.24~7.12)



13

한국학 워크숍(2013.8.19~8.28)

IRS Newsletter는
연 2회 발간되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소식지입니다.



양적 확대를 질적 변화의 토대로 삼자!



존경하는 동학제현 여러분!

40년만에 찾아온 올 여름 무더위와 폭염도 계절의 변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년 초에 계획했던 여러분 모두의 소망을 차분히 이뤄 나가시기 바랍니다.

2013년은 러시아연구소에 중요한 획을 긋는 한 해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2009년에 마련한 장기전략 'Vision 2020'을 통해 세계적인 러시아연구소로 비상하고 2단계 인문한국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연구소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의지를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시키기 위해 지난 6개월 간 러시아연구소 소속 모든 연구진들은 맡은 연구와 사업에 헌신적으로 매진했습니다.

먼저 2013년 1학기에는 한국노어노문학회와 공동으로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한 국내학술회의는 한려 수교 이후 국내에서 개최한 단일행사로는 최대인 17명의 외국인 학자가 발표와 토론으로 참가하는 매머드급 행사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학술회의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문가가 참가하는 콜로키움 6회 등 인문한국사업의 아젠다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13년 7월에는 영문학술지 REGION 제4호를 발간했습니다. SCI급 저명학술지로 등재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의 러시아 지역연구를 주도할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학문의 사회적 대중화 사업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 전국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를 개최했고, 여름 방학기간 중 러시아어 서머스쿨도 개최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으며, 대학원 전문가 초청 강연 8회, 중앙아시아·몽골 전문가 초청 강연 3회 등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발간 등 선도적 지역연구 사업도 계획한 것을 예정대로 완료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연구소 'Vision 2020'을 위한 제2단계를 시작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 합니다. HK연구사업이 안정화되는 것을 토대로 향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 주요 연구소와 학술교류를 활발히 모색할 것입니다. 동학제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세계적 수준의 러시아 전문연구소로 웅비하기 위해 소장을 비롯해 러시아연구소 소속 모든 연구인력들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조연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소장 **홍완석**



초청강연회



학술행사



러시아연구소, 노어노문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2013년 6월 7일(금)~8일(토)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한국노어노문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러시아 인문학과 교육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이틀에 걸쳐 4개 세션에 22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러시아연구소의 HK사업 아젠다를 구현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교수의 학술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인문학과 교육의 실용적 통섭을 추구한 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외국인 발표자가 17명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외국인 학자가 단일한 학술행사에 발표자로 참가한 경우는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지 20년이 넘는 동안 처음이었다. 둘째, 국내 대학교에서 러시아어 교육을 담당하는 러시아인 교수들이 발표 기회를 갖고 실제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 바람직한 러시아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러시아 연구소는 이번 행사를 토대로 러시아 교수들과 함께 고민하는 러시아어 교육관련 행사를 확대할 계획을 구체화시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 3월 콜로키움 개최

2013년 3월 28일(목)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신진학자와 러시아전문가를 초빙해 제 127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러시아 국립 야로슬라블 대학교 소콜로프(Sokolov, Alexander Vladimirovich) 교수가 “현대 러시아 시민 저항운동의 현주소: 시베리아 지역과 극동 지역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발표를 통해 소콜로프 교수는 연방관구 및 행정주체를 기준으로 24개 지역을 표본으로 삼아 정부 관리, NGO 지도자, 정당 지도급 인사, 기자, 사업가, 학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 지표를 제시했다. 소콜로프 교수는 오늘날 러시아 각지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의 수단으로 다양한 시민 저항운동이 시작되고 있으며, 그 빈도와 참여자 수는 연방관구별, 행정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현재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 중심으로 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모든 시위와 저항운동이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민 저항운동의 원인으로 뇌물, 부패, 공직자 권력 남용, 물가 인상, 주택 보급 부족, 낮은 보수 등을 거론했다.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 4월 콜로키움 개최

2013년 4월 25일(목)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러시아 전문가를 초빙해 제128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송준서 HK교수는 “국경지역의 기억: 스몰렌스크 사례연구”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러시아 중앙연방관구에 속한 스몰렌스크 주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전략공간이다. 고대에는 발트 해로부터 흑해로 연결되는 수상 교역로의 거점지역이었으며, 중세 이후로는 외부 문화의 유입 창구이자 외부 세력의 침입 경로였으며, 러시아 내부에서 유럽으로 나가는 육로 관문의 역할을 수행한 요충지였다. 스몰렌스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다양한 사진자료를 통해 설명한 송준서 교수는 스몰렌스크는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해 전쟁의 기억을 품고 사는 도시라는 점을 언급했다. 더욱이 도시 전역에 아픈 기억의 역사가 스며 있다고 전하면서, 과거 소비에트 시대로 시간이 되돌려져 마치 도시가 그 시기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 5월 콜로키움 개최

2013년 5월 30일(목)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신진학자와 러시아 전문가를 초빙해 제 129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황성우 HK교수가 “카피체와 소도(蘇塗)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황성우 교수는 카피체와 소도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와 같이 체계화된 고등종교가 아닌 자연 발생적인 토속적 민속신앙, 민간신앙의 성지(聖地)로서 고등종교가 채택되기 이전에 러시아와 한국에 존재했던 종교적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의 카피체(Kapishche)와 한국의 소도(蘇塗)는 러시아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HK사업의 아젠다 ‘러시아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을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대상임을 지적하면서, 한국적 재구성을 위해서는 러시아 문화현상을 한국적 개념과 연결해 비교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카피체와 소도 모두 고대 국가의 기틀이 잡히고 중앙집권국가가 등장하면서 소멸했지만, 그 공간이 지속되고 기능이 변화되면서도 존속한 이유는 농민이나 백성들에게 민간신앙의 영향력이 남아 있고, 그들이 과거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 6월 콜로키움 개최

2013년 6월 27일(목)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신진학자와 러시아 전문가를 초빙해 제 130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 발표자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김민수 HK교수는 “즈브루치 석상과 돌하르방 비교”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발표를 통해 김민수 교수는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즈브루치 석상을 통해 고대 러시아인과 더나가 슬라브인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세계관을 고찰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석상의 모양, 기능, 역할을 고려할 때, 즈브루치 석상은 투르크계의 석상과도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서는 북방기원설, 남방기원설, 자체확산설 등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북방기원설이 좀 더 설득력 있다며, 자료가 확보된다면 유라시아 제민족의 석상을 비교 연구하는 것도 매우 유익한 주제임을 강조했다.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 7월 콜로키움 개최



2013년 7월 23일(화) 러시아연구소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신진학자와 러시아 전문가를 초빙해 제131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동서사회연구소 소장인 탄갈리체바(Rimma Tangalycheva) 교수를 모시고 “한-러 간 문화소통에 관한 러시아 내 최근 연구동향”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발표를 통해 탄갈리체바 교수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서사회연구소가 러시아의 대표적인 한국학연구소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동서사회연구소는 러시아 내 다문화간 소통, 동화, 변용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학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 현지공장을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소속 러시아 직원들을 통해 ‘한러 노사문화 비교연구,’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같은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 8월 콜로키움 개최



2013년 8월 29일(목)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신진학자와 러시아 전문가를 초빙해 제132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러시아 인문학의 정신과 문화 전통”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한림대학교 심지은 교수는 첫째, 러시아 인문학의 개념 정의, 둘째, 인문학의 결실이자 정수로서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문화, 셋째, 러시아 문화가 주는 교훈 등 세 가지 세부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심교수는 러시아는 문화가 하나의 공공재라는 의식을 일찍부터 자각했고, 이를 기꺼이 실현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은 결국 러시아가 긴 호흡을 통해 만들어 온 인문학 정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가능한 러시아적 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회가 옳은 사회”라는 신념과 확신에 있다고 주장했다.



제3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 개최

2013년 5월 10일(금) 본교 미네르바 콤플렉스에서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러시아 루스키 미르 재단 및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러시아연방 대외협력청과 공동으로 제3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대회에는 전국 대학에서 신청한 20여명이 예선을 거쳐 16명이 최종 참가했다.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수준별 A/B 트랙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에는 이고은(한국외대), 정승상(한국외대), 금상 박주원(한국외대), 옥명근(한국외대), 은상 김세을(중앙대), 유정민(한국외대), 동상 민지영(서강대), 소지은(경희대) 등이 수상했다. 6개월 러시아연수, 러시아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상품이 걸린 이번 행사에는 참가자 모두에게 상장과 상품이 제공됐다.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러시아어 토론대회는 러시아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평가받았다. 행사를 주최한 러시아연구소 측은 이번이 세 번째 행사였던 만큼 진행상 문제점을 많이 보완했다면서 앞으로도 짜임새 있는 행사로 거듭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연구재단, 아어로플로트 항공, (주) 팔도, 주한 벨라루스대사관 등이 후원했다.





러시아연구소, 2013 Summer School 개최



2013년 6월 24일(월)~7월 12일(금)까지 3주 동안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사업 학문 후속세대 양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3 Summer School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4개 대학 출신 총 10명의 대학생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됐으며, 러시아어 특별과정과 야간 지역학 특강으로 구분돼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원어민 교수와 한국인 교수가 함께 진행하는 어학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어 듣기, 말하기 능력을 배양하고 러시아어 문법 지식을 높이는 한편, 러시아연구소 소속 HK교수들이 진행한 문화 특강을 통해 러시아 사회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도 습득할 수 있었다. 수료식이 끝나고 진행된 뒷풀이 모임에서 학생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러시아에 가지 않고도 단기간에 러시아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이 행사가 지속되기 바란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대학원 전문가 초청 특강

일자	발표자	발표 주제
2013.03.08	김선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제1강: 미국발 셰일가스 혁명과 러시아 에너지 안보전략 제2강: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시장 접근 전략
2013.03.15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제1강: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역할 제2강: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과 한러관계
2013.03.29	장세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제1강: 러시아의 선거제도와 2011-2012 총·대선 결산 제2강: 러시아의 권력구도와 푸틴3기 정부 권력엘리트 변동
2013.04.05	김현택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제1강: 한·러 양국의 공공외교 제2강: 문화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한·러 문화교류
2013.04.12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제1강: 소련 해체이후 한러관계의 전개와 진화과정 제2강: 한러관계 발전의 기회요인과 제약요인
2013.04.19	Aslakhonov Aslambek 전 러시아 연방의회 부의장	한·러 경제협력에 대한 제언
2013.05.24	김덕주 국립외교원 교수	제1강: 대한민국에서 지역전문가란? 제2강: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2013.05.31	강덕수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제1강: 노마드 시대의 시베리아 제2강: 신 노마드 시대의 시베리아와 한국

중앙아시아 몽골 전문가 초청 특강

일자	발표자	발표 주제
2013.03.22	제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강: 탈냉전기 몽골 외교정책의 변화 제2강: 카스피 해의 지정학적 의미와 경제 협력 문제
2013.05.03	민병훈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 부장	제1강: 중앙아시아의 풍토와 역사적 추이 제2강: 중앙아시아의 종교문화
2013.06.07	이욱현 전 외교부 유럽국장	한·중앙아 협력관계 현황 및 발전 방향

월례 콜로키움

일자	발표자	발표 주제
2013.03.28	Alexander Sokolov 야로슬라블 국립대학교 교수	현대 러시아 시민 저항운동의 현주소
2013.04.25	송준서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교수	국경지역의 기억: 스몰렌스크 사례 연구
2013.05.30	황성우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교수	카피체와 소도(蘇塗) 비교 연구
2013.06.27	김민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교수	즈브루치 석상과 돌하르방 비교
2013.07.23	Rimma Tangalycheva 상트페테르부르크 동서사회연구소장	한-러 간 문화소통에 관한 러시아 내 최근 연구동향
2013.08.29	심지은 한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러시아 인문학의 정신과 문화 전통



영문학술지 REGION 제4호 발간

러시아연구소는 2013년 7월 1일 세계적인 출판사 Slavica와 함께 영문 학술지 'REGION' 제4호를 발간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 시겔밤(Lewis Siegelbaum) 교수와 러시아연구소 소장 홍완석 교수가 공동 편집장을 맡은 'REGION'은 러시아를 비롯해 동유럽, 중앙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 이슈들을 분석하는 전문 학술지이다. 제4호에는 알렉산더 리브만(Alexander Libman), 블라디미르 코즐로프(Vladimir Kozlov), 제레미 모리스(Jeremy Morris) 등 세계적 석학들의 글 총 6편과 서평 1편이 게재됐다.

※ 본 저널의 목차와 본문 내용은 Project MUSE의 사이트(<http://muse.jhu.edu/journals/region>)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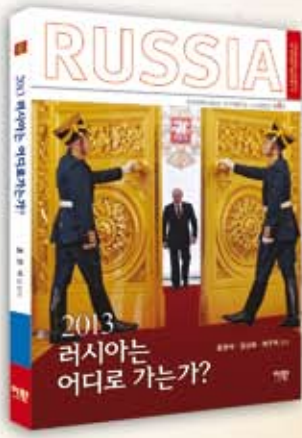
원시림 속 부상하는 산업기지, 코미 공화국

저자 김혜진 / 출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2013

러시아 북서 끝자락을 차지하고 있는 코미 공화국은 독일보다도 더 큰 영토와 울창한 숲으로 유명하다. 코미 원시림은 1995년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됐으며, 오늘날 유럽에 남아 있는 가장 넓은 원시 북부 한대수림이기도 하다. 풍부한 산림자원과 석탄, 석유와 같은 유용광물은 소비에트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공화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 책은 오늘날 러시아의 선도적인 산업기지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코미 공화국을 소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저자는 코미 공화국이 러시아연방이라는 거대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정치·경제적 길을 걸어왔으며, 하나의 민족공화국으로서 어떠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2013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저자 홍완석, 김선래, 최우익 / 출판사 이환 / 2013

올해로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시리즈가 네 번째 출간됐다. 2010년부터 출간된 이 시리즈는 매년, 매 순간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과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말과 2012년 초 선거부정을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지만, 현재 러시아 정국은 안정적인 모양새를 갖추어 가고 있다. 국민은 혼란보다 안정을 추구한 결과일까?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각종 선거에서 크렘린의 효과적인 선거전술이 작용했다고 지목된다.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국의 진행 과정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세계 및 동북아 정책, 그리고 최근의 경제동향에 관해 이 책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슬라브研究 (제29권 1호~2호)

러시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슬라브研究』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동유럽과 러시아 및 CIS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수준 높은 연구논문을 실고 있다. 연 2회 발간되던 『슬라브研究』는 2011년부터 연 4회로 증편됐다. 지난 3월, 6월 제29권 1호, 2호가 발간됐으며, 각각 6편, 6편의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들을 실고 있다. 『슬라브研究』에 게재된 논문들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us.or.kr>)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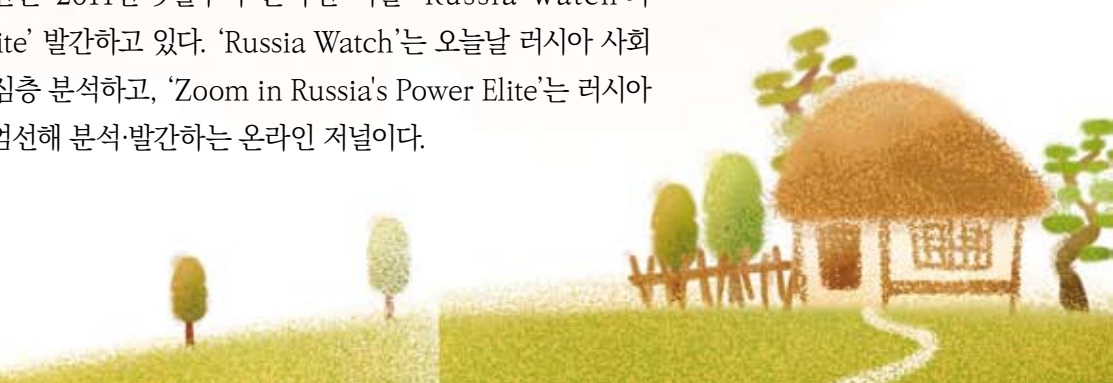
Russia & Russian Federation (제13호 ~제14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이 인문한국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하는 『Russia & Russian Federation』은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시사성 있는 이슈들을 분석하고 러시아 지역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는 시사정보지이다. 제8호부터는 법무법인 미르 변호사들이 집필하는 법률상식을 연재하고 있다.



온라인 저널 ‘Russia Watch’와 ‘Zoom in Russia’s Power Elite’ 발간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2011년 9월부터 온라인 저널 ‘Russia Watch’와 ‘Zoom in Russia’s Power Elite’ 발간하고 있다. ‘Russia Watch’는 오늘날 러시아 사회 문화 현상을 독창적 시각으로 심층 분석하고, ‘Zoom in Russia’s Power Elite’는 러시아를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들을 엄선해 분석·발간하는 온라인 저널이다.



IRS NEW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러시아연구소, 러시아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개최

2013년 8월 19일(월)부터 8월 28일(수)까지 러시아연구소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러시아 내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러시아인에게 올바른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러시아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중등교사 및 교육관계자 15명을 초청해 서울, 경주, 부산 등지에서 한국학워크숍을 개최했다.

러시아연구소와 국제교류재단은 2008년부터 매년 20명 내외의 러시아 교육자를 초청해 한국문화 바로 알리기에 힘써 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러시아교육자 한국학워크숍'은 한국의 역사, 교육, 경제, 한류와 대중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총 8회에 걸쳐 내실 있는 강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인들이 우리나라를 잘못된 편견없이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임진각, 창덕궁, 불국사, 수원외고, 동대문 시장 등 한국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장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러시아연구소는 행사에 참가했던 러시아 교육자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고 상호 간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러시아 교육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로 특히 워크숍에 참가했던 러시아 교육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 관련 강의를 선택과목에 포함시키고, 지리교과서에 '동해'를 병기(2010년)하는 등 한국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며 본 행사의 취지를 더욱 빛내주고 있다.

러시아연구소 소속 교수 3명 동아시아 슬라브학회 참가

러시아연구소 홍완석 소장과 송준서 HK교수, 이리나 코르군 HK연구교수 등 3명은 2013년 8월 9일(금)~10일(토) 이틀에 걸쳐 일본 오사카 경법대학교(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 Law)에서 열린 제5회 동아시아 슬라브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참가했다. 이 학술대회에서 하나의 패널을 구성해 발표한 러시아연구소 교수들은 각각 홍완석 소장 “Limits of Japanese-Russian negotiations on the Northern Territories: A Korean Perspective,” 송준서 교수 “Forging Post-Soviet Regional Identities: The Politics of War Memory in Smolensk,” 이리나 코르군 교수 “Russia’s Accession to WTO: Implications for Russian-Korean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한중일 3개 국가 학자들이 합의해 창설한 동아시아슬라브학회 국제학술대회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동아시아 러시아전문가들의 학문적, 인적 교류를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국제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핀란드, 스웨덴, 대만,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12개국 출신 학자들이 114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인원도 약 150명이 넘었다.



박진 前국회의원 러시아연구소 방문

2013년 8월 5일(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이자 전 3선 국회의원인 박진 교수가 러시아연구소를 방문했다. 평소 러시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박진 교수는 홍완석 소장과의 면담을 나누고, 연구소 소속 HK인력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는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한국에게 숙명적으로 중요한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연구소가 국내 러시아연구의 메카가 돼 줄 것을 당부하면서 연구소가 추진하는 다양한 연구사업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연구소를 소개하는 시간에는 현재 연구소가 추진 중인 HK사업의 취지와 목적 실현방안 등을 듣고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강조하면서 대형 국책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연구소가 세계적인 러시아 전문연구소로 비상할 것을 주문했다. 공식적인 만남이 끝나고 마련된 식사시간에는 박진 교수가 의정활동을 할 때 러시아와 관련된 사안들과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동서사회연구소 소장 탄갈리체바 방문

2013년 7월 23일(화) 러시아연구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서사회연구소 소장 탄갈리체바 교수는 연구소를 방문해 2013년 10월 한국외대에서 개최하는 공동 국제학술회의에 대해 홍완석 소장과 논의하고 학술회의 준비 과정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구자 교류 차원에서 대학원생들의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 마쓰자토 교수 연구소 방문

2013년 5월 6일(월)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 마쓰자토 교수가 연구소를 방문해 홍완석 소장과의 만나 러시아연구소가 추진 중인 인문학국사업과 한국외대와 홋카이도 대학교의 학술교류 활성화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마쓰자토 교수는 러시아연구소가 추진하는 HK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양국의 인문학 양성을 위해 러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동서사회연구소 대학원생 현지조사차 연구소 방문

2013년 7월 1일(월)~7월 10일(수) 10일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 동서사회연구소 대학원생과 학부생 2명이 한국 현지조사차 연구소를 방문했다. 알렉산드라 바프티즈만스카야(Alexandra Baptizmanska)와 안나 보이니크(Anna Vojnik)는 체류하면서 학위논문을 위한 현지 인터뷰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동서사회연구소와 러시아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학문후속세대 연구자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다. 두 학생들은 작년에 방문한 코발렌코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한 학생들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후원자 모집



1. 후원 취지

1972년에 창립된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2012년 40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고(最古)의 러시아학 연구소입니다. 굵직한 학문적 족적을 남겨온 러시아연구소는 이제 국내 전문연구소의 위상을 뛰어넘어 세계 수준의 연구 메카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에 러시아연구소의 도전을 격려해주시고,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실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2. 후원자 자격

러시아연구소 연구 및 출판 등 제반 학술 활동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 및 기관은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후원금 규모 및 약정 기간

- * 개인회원: 1년 10만 원
- * 기관회원: 1년 100만 원
- * 특별회원(개인 및 기관): 1년 상당액의 후원금
- * 약정 기간: 1, 3, 5, 10년 중 택일





4. 후원자 혜택

- * 러시아연구소의 일정 출판물 지면에 후원자임을 표시해드립니다.
- * 러시아연구소의 각종 출판물 및 정기간행물을 보내드립니다.
(러시아연방총서, 학술연구총서, 슬라브연구, Russia & Russian Federation 등)
- * 특별회원은 협의에 따라 주요 출판물의 공동발행인(로고 포함)으로 표시해드립니다.
- * 후원금은 세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무료로 배포되던 러시아연구소의 각종 on-line 성과물은 종전과 같이 보내드리며,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회의 및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 후원금의 수납 및 처리 과정

후원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처 발전협력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납되고 관리되며, 후원금의 사용명세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게시됩니다.

상담 문의: 031-330-4144(최우익 교수) / 031-330-4852(김선래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소장 홍완석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후원자 현황(2013년 9월 기준)

성명	소속	약정금액
강흥주	한국외대	100만 원
기연수	한국외대	100만 원
김근식	중앙대	50만 원
김수환	한국외대	30만 원
김준석	한국외대	30만 원
김현택	한국외대	100만 원
방교영	한국외대	100만 원
서동주	국가안전전략연구소	50만 원
송준서	한국외대	100만 원

성명	소속	약정금액
이종진	한국외대	100만 원
이재문	경북대	30만 원
장 실	한국외대	100만 원
최우익	한국외대	100만 원
포드고르나야 류보피	한국외대	20만 원
한정숙	서울대	100만 원
홍완석	한국외대	300만 원
황성우	한국외대	100만 원
합계		1,510만원

국제학술회의 개최 안내

- ◆ 주 제 : 글로벌화 시대 러시아와 동북아의 변화와 도전
- ◆ 일 시 : 2013년 10월 18일 ~ 19일 (금, 토)
- ◆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 ◆ 주 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크 동서사회연구소

※ 자세한 사항은 추후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us.or.kr>), 이메일 등을 통해 공고

Russia · CIS Focus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에서 ‘Russia · CIS Focus’ 칼럼투고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매주 발행하는 ‘Russia · CIS Focus’ 칼럼은 러시아 및 CIS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영역뿐 아니라 어학·문학·예술 등 모든 영역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주간 인터넷 칼럼입니다.

러시아와 CIS 지역에 관련된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편집부의 검토를 거쳐 실리며, 소정의 고료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이 지역 정보를 갈구하는 동화제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 식 : 한글 기본화면, 11포인트, 2페이지 내외

◆ 내 용 : 러시아·CIS 지역에 관련된 글

- 홈페이지 참조 : www.rus.or.kr
- 보내주실 E-mail : hkirs@hufs.ac.kr
- 문의전화 : 031-330-4852

항상 소중한 옥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기존의 Russia·CIS Focus 칼럼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u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슬라브研究

논문투고안내



『슬라브研究』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발간되고 있고, 동유럽과 러시아 및 CIS지역의 어학, 문학,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분야에 관한 깊이있고 참신한 연구논문을 실고 있습니다.

- 『슬라브研究』 발간일 : **12월 30일** (제29권 제4호)
- 논문 투고 마감일 : **10월 20일**

『슬라브研究』에 기고를 원하시는 동학제현께서는 논문 제출기한에 맞춰 본 연구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논문 투고요령과 심사 규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 시 필수기재사항

- 1) 논문 영어 제목 및 초록
- 2) 논문키워드(국문5개, 영문5개)
- 3) 관심분야 3가지(국문)

- 홈페이지: www.rus.or.kr
- e-mail: irspress@hanmail.net
- Tel: 031-330-4895

항상 왕성한 학문적 성취를 기원드리며 소중한 옥고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研究』 편집위원회 드림.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